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3. 5. 3.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3년 5월 3일(수) 15:00~17:00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김 소 영 위 원 장

*의결 제78호

김 정 각 위 원

송 창 영 위 원

박 중 성 위 원

이 동 욱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3년도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1) 회의록 보고

- ☐ 2023년도 제8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78호 『(주)○○○○○○○○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저는 (주)○○○○○○○○ 대주주로 있으면서 감사의견이 나오기 전에 제가 알고 주식을 샀다고 하는데 감사의견이 나오는 것을 전혀 알 수도 없었음. 감사의견 나오기 전날 직원 전부 다 오후 10시 정도에 감사인한테 가서 자료제출하고 소명하기도 했음. 거의 감사의견이 안

나올 분위기였고, 공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공시는 일절 관여를 하지 않았음. 제가 대표도 아니고, 출입국 기록을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할 수도 있는데 저는 당뇨와 고혈압 합병증 때문에 거의 제주도나 해외에 있었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회사에 가는데 제가 공시 등을 챙길 수 없는 입장이었음. 그리고 가상화폐거래소(BB) 인수 문제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것이 맞고, BB에서 직원이 오기 전까지 저희는 자금을 끌어 모아서 신규 사업 진출을 하려고 했음. 그런데 BB에서 CCC 회장과의 거래(deal)가 다 끝났다고 들었고 그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저희가 CCC 회장과 대화 후 인수를 포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뿐임. 사업 타당성 검토했을 뿐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주식을 단 1주도 팔지 않았고, (주)DDDDDD 저축은행에서 반대매매 나가기 전까지 저는 보유 주식이 1,000억원 넘어간 적도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제 자의적으로 단 1주도 팔지 않았음.

- (위원) 자료를 확인하니 3월29일에 주주총회를 한다고 공시가 되었고, 주총 1주전, 3월21일까지 회사에 감사보고서가 전달되어야 하는데 3월21일까지 감사보고서가 전달되지 않아서 회사가 감사보고서 지연공시 한 것인지?

▶ (진술인) 아마 그랬을 것임.

- (위원) 감사보고서를 3월21일까지 제출할 수 없다고 감사인으로부터 언제 정확하게 통보를 받았는지?

- ▶ (진술인) 저는 통보 받은 적이 없고, 3월 21, 22일 아마 그때 즈음이었던 것 같은데 유선상으로 “의견 나오는 것이 지금 불확실하다. 그래서 공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들었음.
- (위원) 감사인이 3월21일까지 감사보고서 줄 수 없다는 것을 회사에 통보를 했을텐데 그것을 정확하게 언제 감사인으로 부터 회사가 통보를 받으셨냐는 것을 여쭙는 것임.
- ▶ (진술인) 제가 직접 통화를 하거나 거기에 관여하지는 않았고 전화번호도 서로 몰랐음.
- (위원) 회사의 누가 감사인으로부터 전화 받은 것인지?
- ▶ (진술인) 대부분 JJJ 이어나 LLL 부사장이 받았음. 회계를 맡고 있는 담당자들임.
- (위원) 그 다음에 감사보고서 제출할 수 없다고 감사인이 제시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 ▶ (진술인)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원래는 그때 나와야 되는 것인데 못 나간다는 의견만 저는 받았음.
- (위원) 진술하신 것을 보면 ‘FFF과 GGG에게 회사가 잘 될 것 같으니까 주식을 매입하라고 권유를 한 것이고, 내가 자기계산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회사의 전망이 좋으니 주식을 매입하라고 권유를 했다.’ 라고 되어 있음.

▶ (진술인) 맞음.

- (위원) 그런데 위 진술과 감사의견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전달받은 것은 맞지가 않음.

▶ (진술인) 맞음.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FFF과 GGG가 주식을 매집할 때는 한참 전이었음. 이 이슈(issue)가 발생한 것이 아마 3월 21, 22일 즈음일 거고, 이때 감사가 의견을 안 주고 지연시킨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의견을 안 준다는 뜻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임. 그 당시에 주식을 산 것이 아니라 한참 전 회사가 여러 사업계획을 가지고 신규 사업을 검토할 때 술자리에서 처남과 같이 얘기를 나눈 것임. 그 다음에 동 이슈(issue)가 발생한 것은 21, 22일경 감사의견이 안 나오니까 그때부터 위기감이 형성된 것임.

▷ 진술인이 퇴장함.

▷ 마지막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저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음. 그 근거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첫째, 저는 2016년 2월 주식양수도계약서 체결에 의하여 일체의 경영권을 넘겨주고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었음. 둘째, 저는 경영권을 넘겨준 이후에는 회사의 이사회 등 각종 회의, 모든 공·사적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어떠한 결재도 한 적이 없음. 셋째, 2019년 이후에는 급여 등

각종 수당, 회사로부터 어떠한 금전적인 것을 받지 못하였으며 심지어는 약 3억 원에 상당하는 퇴직금도 받지 못하였음. 넷째, 회사 임직원들의 근무 소재지가 서로 달랐음. 회장을 비롯한 실질적 대표이사, 또한 모든 임직원들은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저와 생산직 직원 3~4명만 경기도 광주 소재 공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직원 간의 소통과 대면, 업무 교류가 거의 없었음. 그러므로 제가 회사의 경영정보나 각종 자료, 소식 등을 알 수 있는 채널이 거의 단절된 상태였음. 다섯째, 제가 대표이사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오로지 성남상공회의소 회장직 업무수행을 위한 서류상으로 명목상 필요에 의하여 유지하였던 것임. 여섯째, 이러한 사실은 그 당시 회사에 근무하였던 거의 모든 직원들이 알고 있었던 사항이고 심지어 저와 같이 근무했던 RRR이라는 직원은 이런 소식을 듣고 제가 경영에서 배제되었던 사실을 기술하여 금융감독원에 사실진술서를 써서 제출해 주기도 하였음. 다음, 제가 주식을 매수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음. 첫째, 제가 2019년 2월 주식을 매수하였던 것은 그 당시 회사의 주가가 300~400원으로 창사 이래로 가장 최저가로 내려가기에 개인적인 이익 실현을 위하여 매수하였음. 제가 그동안 회사를 경영한 경험에 의하면 회사는 큰 이변이 없는 한 평균주가가 1,200~1,500원 선을 유지하였기에 머지않아서 정상적인 주가로 상승할 것이라고 믿고 매수한 것임. 둘째, 그 후 2020년 3월, 회사는 결산회계감사에서 감사의견거절이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저는 그 당시에도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2020년 2월27일 주가가 다시 800원대로 내려가기에 그 가격도 하한가라고

생각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주식 246,000주를 매수하였음.
그 후 2020년 3월19일, 회사는 주식거래정지처분이 내려졌고 저는 그러한 내용을 사전에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포함하여 총 90만 주라는 주식을 끝까지 소유하고 있다가 1주식도 매도하지 못하고 전량 휴지조각이 되어서 약 12억 원 상당의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 적도 있음. 비록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매수는 하였으나 맹세코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수한 적은 없음.

- (위원) 2019년 2월20일에 적금을 중도해지 하신 자금으로 차명계좌를 통해서 상당한 수량의 회사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

▶ (진술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의 주가가 300~400 원대로 내려가기에 최저가라고 생각해서 저의 개인적인 이익을 실현하려고 샀음.

- (위원) 적금에도 약정된 이자율이 있는데 적금을 중도해지 하면서까지 3억원이라는 자금을, 그것도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사셨는데, 통상적으로 회사 주식 투자를 항상 이 정도 규모로 투자해 오신 것인지?

▶ (진술인) 아님.

- (위원)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와 관련된 내용을 접한 분이 아

니면 이런 형태(pattern)의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어떠신지?

▶ (진술인) 그렇게 보시겠지만 저는 회사를 한 30년간 경영을 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을 제가 알고 있음. 300~400원대까지 내려갈 수가 없는 주식임. 그래서 나중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주식을 샀고, 자금은 제가 평소에 돈이 없기 때문에 적금 들어놓은 것을 해약해서 산 것임.

○ (위원) 아까 모두진술에서 사실상 경영에 다 관여하지 못했고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회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금까지 깨가면서 3억원씩 투자를 하신다는 것이 와 닿지 않음. 어떠신지?

▶ (진술인) 말씀드린 대로 회사의 주가가 그렇게 내려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20년간 그렇게 내려간 적도 없었고 회사에 큰 이변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정상대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믿고 그렇게 산 것임.

○ (위원) 왜 굳이 차명으로 사셨는지?

▶ (진술인) 그 사유는 제가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2000년도에 대표이사 임명을 받았음. 그때 3.75%의 아주 적은 지분으로 대표이사가 되니까 대표이사가 되고 2~3년째에 소위 M&A를 하려고 하는 적대적 세력으로부터

어려움을 많이 겪었음. 그래서 그때 느낀 것이 우호지분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 계좌를 만들었던 것임.

- (위원) 예전에 만들어 놓은 차명계좌를 이때 활용하셨다는 것인 지?

▶ (진술인) 맞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저는 뒷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데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감사보고서 지연공시가 뜨는데도 계속 주식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듦. 물론 사유는 해외 자회사 연결과 관련된 이슈(issue)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사실 감사인이 그냥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재무개선 관련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봐서 감사인 입장에서 재무상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재무개선 관련 확약서를 대주주한테 받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편 QQQ씨는 2월 25일에 매수시기가 딱 멈췄는데 언뜻 생각하면 감사의견과 관련된 고민 이전에 혹시 2019년 2월 28일에 잠정치 공시가 됐는데 그 무렵에 이 정보가 공유되어서 2월 18, 2월 20일 샀다고 볼수도 있을 것 같고, AAA씨는 3월 21일에 감사보고서 지연공시가 있었는데 차명으로 3월 26일까지 계속 산

것 자체도 잘모르겠음. 진술인이 진술한 내용 중에 혹시 조사한 결과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음.

- (보고자) 우선, 진술인들의 진술은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다른 내부자 등으로부터 확보한 진술과 상충되는 내용들임. 다른 내부자 또는 관계자들은 그 당시에 특별한 이슈(issue)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음. (주)○○○○○○○○가 인수한 비상장 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두고 있었는데, 그 해외 자회사의 공식적인 결산 서류가 들어오지 않아 감사보고서가 지연제출된 것이고 다른 진술인들은 감사보고서 의견이 변경될만한 특별한 이슈(issue)가 없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함.
- (위원) 그 당시 감사의견이 나오게 된 과정에 대해 감사인한테 확인해 보신 바는 있는지?
- (보고자) 감사과정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받았고, 2018년말 외부감사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이슈(issue) 사항은 없었음.
- (위원) 정보의 생성시점을 2월 8일 현장감사 종료시점으로 잡으셨는데, QQQ씨는 2월 8일로부터 12일 정도가 지난 이후에 갑자기 적금을 해지하는데 적금 해지일자가 2월 20일임.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 현장감사를 하는 경우 현장(field)팀이 들어가서 품관실이나 이런 곳에서 내부적으로 의사조율을 거치고, 현장(field)에서 감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특별한 이슈(issue)가 없었기 때문에 2월 8일로 잡으신 것인지?

- (보고자) 이슈(issue)가 있다면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라든가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서 감사인으로부터 이슈(issue)제기가 됨. 심각한 사항들이 없는 상태에서 현장(field)에서 감사인이 철수하게 되면 재무제표 감사의견이나 감사자료와 관련된 정보는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생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위원) 회사가 2월 28일에 잠정치를 내놨는데 이때는 별로 주가 움직임이 없었고, 한 달 뒤에 감사보고서가 제출되고 공시가 된 다음에는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말씀을 주셨음. 물론 감사인이 회계기준에 부합한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다는 의견을 내는 것이 굉장히 유의미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회사가 잠정치를 내 놓았을때 그것이 유의미한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회사가 잠정적으로 결산한 수치가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많이 변경된 사실이 있는지가 첫 번째 여쭙보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3월 27일 감사보고서 이후에 이 회사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만한 다른 사유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여쭙보겠음.
- (보고자) 먼저, 주가 상승과 관련해서 특별한 호재성 이슈(issue)는 없었음. 당시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잠정치 공시를 투자자들이 신뢰하기 어려웠다고 판단이 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만 투자자들이 결산정보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판단되었음.
- (위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QQQ씨가 이용한 정

보와 AAA씨가 이용한 정보의 성격이 좀 다른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미공개정보를 둘로 나누어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임. AAA씨는 지연공시 사유만 해소된다면 당연히 주주총회 이내에 ‘적정의견’을 받은 감사 보고서가 공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닌가 싶고, QQQ씨 같은 경우에는 2월 28일에 잠정치가 공시되니까 ‘이 잠정치가 공시되면 주가가 좀 상승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20일부터 25일까지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 사람이 이용한 정보가 좀 다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임.

- (위원)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이용한 정보가 달라서 달리 구성해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금감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법률자문관님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구체적인 행위 하나 하나를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당시 QQQ씨는 정기적금을 급하게 해약하면서 자금을 마련했음. 그러니까 주식을 언제부터 얼마만큼 살 것이냐에 대해서는 가용자금이 얼마이고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냐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음. 가용자금의 부족은 만성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AA씨의 FFF 명의 계좌에서 매수를 보면 “우선 네 돈으로 먼저 사라, 내가 갚아주겠다”고 지시하는 내용 등을 볼 수 있음.
- (참여자) 일단 제 생각에 본 건은 전반적으로 AAA씨 말을

신뢰할 수 없고 고발을 안 할 수가 없는 사안인데, 위원님 말씀이 거래형태(pattern)등을 살펴보면 타당한 말씀임. 그런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정은 검찰에서 봐야 될 사안이니까 금감원의 의견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임.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증선위원장 퇴장(증선위 상임위원이 이어서 회의주재)

□ 보고안전 제15호 『2022년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보고안전 제16호 『2022년도 하반기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의결안건 제79호 『(주)○○○○○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이 안건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단순 공시위반과 부정거래 행위를 구분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금융투자상품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라는 거래관련성 부분이, 결국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일부를 고가에 팔려고 했고,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마치 경영권분쟁이 있을 수도 있는 잠재적인 상황을 보유목적은 거짓으로 보고해서 야기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후단에 이 사람들이 의도하고자 하는 목적, ‘고가매도를 위하여’라는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언급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음. 이 사람은 어차피 연말에 돈을 넣어야 됐기 때문에 장기보유가 불가능했고 본인도 그럴 의사가 없었다고 얘기한 것으로 이미 경영권분쟁 상황을, 본인이 그럴 상황도 아니었고 의사도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에 ‘지분율이 높아 경영권 분쟁의 여지가 거의 없고’ 이렇게 하면 이 의도 자체가 일반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해서 오히려 저희 안건 자체의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굳이 ‘경영권 분쟁의 여지가 거의 없고’라는 부분은 안 넣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 왜냐하면 의미 있는 지분율, 유효경쟁만이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예를 들어 지분율이 낮아서 주주제한을 하면 주가는 상승요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임.

- (보고자) 알겠음.

- (위원) 의도적 허위공시, 그것이 부정거래, 그런데 대량보유 신고지연을 단순한 것으로 취급을 하신 것 같은데 또 읽어 보면 두 개 다 '의도적 공시', '의도적 지연'으로 쓰여서 저는 그 두 가지가 다 같이 부정거래의 일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동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 둘 다 '고의'라고 보셨고, 그것을 명확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음. 1번 부정거래는 목적을 가지고 허위공시를 했는데 2번 대량보유상황 변동보고 의무 위반은 내용적으로 보면 의도적 지연인데 그냥 대량보유상황 변동 보고를 12월30일에 늦게 지연을 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두 개가 묶일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 의결안건 제61호 『대성삼경회계법인의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 혐의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80호 『(주)OOOOOO 前대표이사 ☆☆☆, 前담당임원
⓪⓪⓪·★★★★, 前임원 ◇◇◇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3년도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